



너 참 착한 아이구나

송종용/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오즘 부모들은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칭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야단치고 질책하기보다는 칭찬을 할 때 아이가 자신감도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칭찬을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부모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너 참 착한 아이구나.” 또는 “너 공부 잘하는구나.” 물론 이런 말이 “왜 그렇게 못하니”라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이런 칭찬은 한계가 있다. 우선 자꾸 반복하다보면 칭찬의 효과가 사라진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칭찬의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났다”라는 거만함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다. 거만함을 갖게 되면 남 생각은 안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되고, 자기가 잘 못하는 공부나 기술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고 잘하는 것만 자꾸 하게 되어 막상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착한 아이”라는 칭찬도 비슷하다. “착한 아이”란 말은 마치 굴레같이, 이 굴레에 씌운 아이들은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자기의 욕구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부모와 주위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인다.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 쉬우니까 좋긴하지만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수동적이며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착한 아이”나 “잘난 아이”에 매여 있는 아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과제 수행에 실패했을 때 심한 좌절감과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좋은가?

칭찬을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칭찬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공부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수학을 잘하네”, “피아노 잘 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낫고, 이보다는

“네가 이 수학 문제를 잘 풀었네”,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풀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지?”,

“네가 지금 친 곡이 참 듣기 좋구나”

“어제보다 박자를 훨씬 정확하게 맞춰서 치니까 듣기 편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낫다. 뜬금없이 “너 착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가 동생을 잘 돌봐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낫고, 이보다는 “조금전에 동생이 네 장난감을 빼앗는데도 잘 참더구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네가 의젓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마음이 참 좋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잘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을 위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